

韓愈 散文의 比喻 修辭에 關하여

李 鍾 漢*

I. 序 論

比喻(譬喩)는 사물 사이의 유사한 관계에 기초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을 빌어 표현하는 修辭 방법인데, 비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물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형상적이기 때문에 文意의 선명한 감각적 전달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중국 문학에 있어서도 이는 詩文을 막론하고 두루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 문학의 창작 실천을 두고 볼 때 특히 산문은 정서의 토로보다는 도리의 천명과 사실의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유를 통한 감각적 의미 전달은 작품의 형상성을 제고시켜 산문의 문학성을 확보하는 관건적 자질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분리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은 형상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의식 형태의 하나이다. 그런데 문학에는 다양한 갈래(장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예술 형상의 창조에 대한 요구 수준도 차이가 난다. 즉, 소설이나 희곡이 대체로 장편이면서 이야기의 구성을 통한 전형적인 형상의 구비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편인 시(주로 서정시)와 산문은 그런 完整한 정도에까지 이르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시와 산문도 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형상적 언어를 포함한 형상화한 표현 방법을 많이 구사하여 형상성을 갖춤으로써 문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형상은 내용과 형식의 통일로서 예술 표현을 거

* 啓明大學校 人文科學大學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친 한 폭의 완전하고 생동적인 생활 화면이므로 형상성 곧 형상적 성질을 구비했다고 해서 형상의 창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학 예술의 특징이 형상성에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¹⁾

한유는 일찌기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送權秀才序〉(4-276)²⁾를 보면, 權秀才(이름 미상)란 인물의 문장 성취를 평한 대목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들어 있다.

權生의 용모는 보통 사람과 같을 따름이지만, 그의 문장은 사물을 인용하여 동류끼리 연관시키고 실정을 극진히 하여 변화를 다했다.(權生之貌, 固若常人耳, 其文辭引物連類, 窮情盡變.)

즉, 그는 權秀才의 문장 성취를 칭찬함에 있어 구체적 사물을 끌어와 동류끼리 연관시켜 그 실정을 현저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한유가 문장 창작에 있어 구체적 사물을 통한 비유적 표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작품 창작을 통해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산문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을 빌어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비유의 수사 기교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유의 取材 對象과 그것의 運用 方式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수행하기로 한다.

Ⅱ. 取材 對象

한유의 산문 작품에 나타난 비유의 대상에 대한 분석적 논의에 앞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대표적인 예들을 먼저 들

1) 蔣孔陽, 《形象與典型》(天津: 百花文藝, 1980.10), pp. 11-12.

2) 괄호 안의 숫자는 본고가 저본으로 삼은 馬其昶의 《韓昌黎文集校注》(上海: 上海古籍, 1986.12)의 권수와 쪽수를 가리키는데 이하 동일하다.

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道理를 설명한 것.

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하늘이 작다고 말하는 것은 하늘이 작은 것이 아니다. (坐井而觀天, 曰天小者, 非天小也.) <原道>(1-13)

생활 주변의 구체적 행위로 안목이 좁고 식견이 유한하다는 도리를 설명.

② 이는 이른바 목수가 짧은 말뚝으로 큰 기둥을 삼지 않는다고 힐난하며, 의사가 창포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비난하고 자기의 豨苓을 현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是所謂詰匠氏之不以杙爲楹, 而訾醫師以昌陽引年, 欲進其豨苓也.) <進學解>(1-49)

여기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글의 문맥으로 보아 생활 주변의 가시적인 직업명과 사물인 「匠氏」와 「醫師」, 「杙」과 「豨苓」, 「楹」과 「昌陽」으로 각기 ‘宰相’, ‘不賢者’, ‘賢者’의 개념을 비유하고, 자기의 분수는 모르면서 남의 잘못을 들추어낸다는 도리를 설명.

③ 나무를 잘 깎지 못하는 이는 손에 피를 내고 얼굴에 땀을 내지만, 솜씨 좋은 목수는 절에서 지켜보며 손을 오그린 채 옷소매에 끼고 있다. (不善爲斲, 血指汗顏, 巧匠旁觀, 縮手袖間.) <祭柳子厚文>(5-323)

서투른 목수와 솜씨 있는 목수의 일하는 모습으로 才子는 아무런 흔적 없이 명예를 드러낸다는 도리를 설명.

④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한번 손을 뻗어 구해 주지도 않고 도리어 그를 밀쳐 버리거나 또 거기에 돌을 던진다. (落陷奔不一引手救, 反擲之又下石焉.) <柳子厚墓誌銘>(7-513)

생활 주변의 구체적 행동으로 세태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더욱 가해한다는 도리를 설명.

⑤ 豊山에 종이 있어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곳인데, 서리가 내리면 세차게 울리니 대체로 기운에 감응한 것이지 스스로 운 것이 아니다. (豊山上有鐘焉, 人所不可至, 霜旣降, 則鏗然鳴; 蓋氣之感, 非自鳴也.) <上賈滑州書>(外-659)

豊山(江蘇 豊縣)의 鐘이 ‘서리’(霜)의 기운에 感應한 현상으로 자기가 안목을 갖춘 사람의 발탁에 의해 交感한다는 도리를 설명.

B. 事態나 事實을 형용한 것.

① 머리는 벗겨지고 이빨은 빠져 헐렁헐렁해졌으니 끝내 죽을 때까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頭童齒豁, 竟死何裨?) <進學解>(1-47)

신체 일부의 모습으로 자신의 곤궁한 상태를 형용.

② 나는 나이가 아직 마흔 살도 되지 않았는데 시력이 어두침침하고 두발이 희끗해지고 치아도 흔들거린다. (吾年未四十, 而視茫茫, 而髮蒼蒼, 而齒牙動搖.) <祭十二郎文>(5-338)

신체적 특성으로 자신의 早老한 상태를 형용한 것.

③ 두 세대에 모두 한 사람뿐이니 형체도 하나요 그림자도 하나다. (兩世一身, 形單影隻.) <祭十二郎文>(5-337)

주변 사물로 韓氏 家門의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상황을 형용.

④ 漢나라 이래로 못 유생들이 제각기 수정하고 보충했으나 백 구멍 천 종개가 나서 그대로 좇아 어지러워지고 잃어 버려져 그 위태롭기가 한 머리카락으로 3,000근의 무게를 당기는 것과 같아 뼘뼘히 늘어져 점차 희미하게 꺼져 갔다. (漢氏已來, 群儒區區修補, 百孔千瘡, 隨亂隨失, 其危如一髮引千鈞, 綿綿延延, 寤以微滅.) <與孟尚書書>(3-215)

身上의 질병과 身邊의 행동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존속의 위태로움에 직면한 儒道의 형세를 형용.

⑤ 이빨과 뿔을 다 잘라 내버리고 한결같이 옛 자취를 밟아서 낭떠러지와 언덕을 깨뜨려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하였다. (盡枿去牙角, 一躡故跡, 破崖岸而爲之.) <藍田縣丞廳壁記>(2-90)

이면의 뜻은 모나는 기물과 험준한 자연 경물로 세속과 부화 뇌동하지 않는 자기 나름의 개성과 행동을 형용.

⑥ 그대가 중년에 버림을 받았으나 하늘이 말갈레를 풀어놓은 듯하여 소리가 쟁쟁하고 아름다운 폐옥같이 크게 그 문사를 펼쳐내었다. (子之中棄, 天脫罍羈, 玉佩瓊琚, 大放厥辭.) <祭柳子厚文>(5-323)

생활 주변의 사물로 柳宗元의 문장 성취를 형용. 「天脫罍羈」는 문장의 기제가 솟구쳐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한 필의 말이 하늘에 의해 글레가 풀려진 채 자유 분방하게 달리는 것과 같음을 형용하고, 「玉佩瓊琚」는 그 음운과 내용이 옥처럼 낭랑하고 아름다움을 형용함.

⑦ 의론을 함에 고급의 일을 증거로 끌어와 경서와 사서 및 제자 백가에서 근거를 찾아 그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고매하고 도도하게 바람처럼 터져 나와 항상 그 좌중을 굴복시켰다. (議論證據今古, 出入經史百子, 踔厲風發, 率常屈其座人.) <柳子厚墓誌銘>(7-511)

거침없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의론의 도도한 기세를 형용.

⑧ 폐하께서는 즉위하신 뒤로 몸소 직접 듣고 판단하시어 천지를 회전시키고 기계의 핵심 장치를 운전하시며, 우뢰마냥 맹렬하고 파랗처럼 휘날리고 해와 달같이 청명하게 비쳤다. (陛下即位以來，躬親聽斷，旋乾轉坤，關機闔開，雷厲風飛，日月清照。) <潮州刺史謝上表>(8-619)

자연 경물로 憲宗 황제의 집무 태도를 형용.

C. 感情을 형용한 것.

① 아침 저녁으로 발꿈치를 들고 목을 길게 뻗 채 천하에 번고가 생겨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호기를 틈타기를 바라고 있다. (朝夕擧踵引頸，冀天下之有事，以乘吾之使。) <守戒>(1-52)

몸의 동작으로 천하가 혼란하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의 간절한 심경을 형용.

② 어느 것이 나라의 해충인가? 마디와 뿌리를 잡아 먹는 마디충이니, 양마냥 사나우며 이리처럼 탐욕스러워 입으로 성을 전복시킨다. (孰爲邦蠹，節根之螟，羊很狼貪，以口覆城。) <鄆州谿堂詩>(2-98)

나라를 좀먹는 惡人을 「蠹」와 「螟」 따위의 해충에 비유하고, 그것들의 「羊」과 「狼」같은 속성으로 악인의 탐욕을 형용.

③ 개운하기는 고질병이 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시원하기는 뜨거운 것을 쥐고 있는 이가 맑은 바람을 쐬는 듯합니다. (脫然若沈痾去體，灑然若執熱者之濯清風也。) <答張籍書>(2-131)

身邊의 일로 오랫동안 소식을 끊긴 친구의 편지를 받고 날아갈 듯 기쁜 심정을 형용.

이상의 예들을 통하여 한유는 의론·서사·서정의 모든 표현 방식에 걸쳐 비유의 수사 기교를 두루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신변의 특성이나 동작, 생활 주변의 물상이나 기물, 자연 경물이나 현상 등 비근한 구체적 사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묘사함은 물론 도리를 설명하고 사실이나 상태를 형용함으로써 문장의 형상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들이 대부분 현실 생활 주변의 사물 내지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유 산문 창작의 취재원이 현실 생활에 밀착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바, 당시 口語의 영입 가능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何法周 교수는 成語를 가지고 한유가 언어 창조면에서 거둔 성과를 논하면서 대략적인 통계로 지금까지 成語로 쓰여지는 것이 무려 150여 조목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여타 문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전대의 典籍과 함께 당시 인민의 구두 언어에서 배운 결과라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³⁾ 何 교수는 이런 인식 하에, 唐代 구어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확실한 증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唐代 이전의 典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은 모두 구두 언어에서 배워 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서 허당 응례를 44조목 적시하였다.⁴⁾ 이 통계는 물론 성어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형상적 비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 많지만 그 속에는 본고에서 위에 예시한 A-④의 「落井(陷穽)下石」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A-③의 「血指汗顏」·「縮手袖間」, B-①의 「頭童齒豁」, B-③의 「形單影隻」, B-④의 「百孔千瘡」, B-⑥의 「天脫羈羈」·「玉佩瓊瑤」, B-⑦의 「踔厲風發」, B-⑧의 「雷厲風飛」 등도 《中文大辭典》이나 성어 사전 등으로 확인할 때 唐代 이전의 전적에서 사용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구어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비유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생활 주변의 사물이면서 이미 이전의 典籍에서 사용된 경우도 물론 없지 않다. 이는 用典의 문제와 맞물리기도 하는데, 何法周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한유의 언어 창조면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학습 기초가 前代의 典籍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 문제다. 위에서 인용한 예문 중에서 用典이 확인되는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①의 「坐井而觀天」: 「井蛙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莊子·秋水》)

A-⑤의 「豐山鐘鳴」: 「又東南三百里, 曰豐山……有九鍾焉, 是知霜鳴.」(《山海

3) 何法周, 《韓愈新論》(開封: 河南大學, 1988.8), p.167, pp.178-179.

4) 같은 책, p.180.

經·中山經)), 「霜降則鍾鳴, 故言知也.」(郭璞注)

B-④의 「其危如一髮引千鈞」: 「髮引千鈞」(《列子·仲尼》), 「夫以一縷之任, 係千鈞之重, 上懸無極之高, 下垂不測之淵, 雖甚愚之人, 猶知哀其將絕也.」(《漢書·枚乘傳》)

C-①의 「舉踵引頸」: 「今遂至使民延頸舉踵.」(《莊子·胠篋》)

C-②의 「羊很狼貪」: 「猛如虎, 很如羊, 貪如狼.」(《史記·項羽本紀》)

C-③의 「沈痾去體」: 「客豁然意解, 沈痾頓愈.」(《晉書·樂廣傳》)

이는 한유가 고대의 전적을 두루 섭렵한 기초 위에서 그속에 쓰인 구체적 사물을 통한 비유의 경우를 끌어와 그것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사실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孫昌武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한유가 비유의 대상으로 끌어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없는 작자가 꾸며낸 사실인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⁵⁾ 서론에서 한유가 비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바 있는 〈送權秀才序〉(4-276)의 모두에 보이는 「伯樂의 마굿간에는 훌륭한 말이 많고 卞和의 상자 속에는 아름다운 옥이 많다」(伯樂之廐多良馬, 卞和之匱多美玉)고 한 표현도 따지고 보면 한유가 만들어낸 허구적 사실이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 경우로 〈爲人求薦書〉(3-204)에서 일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무개가 들건대 나무가 산에 있고 말이 마굿간에 있을 때는 만나서 돌아보지 않는 이가 비록 매일같이 천만 사람이 쌓이더라도 아직은 쓸데없는 재목과 쇠하급의 굵든 말이 되지 않지만, 匠石이 지나치면서도 결눈질해 보지 않고 伯樂이 만나고도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뒤에 그것이 대들보감의 재목과 굉장히 뛰어난 말이 아님을 압니다.……옛 사람 중에 시장에서 말을 팔아도 팔리지 않는 이가 있어 백락이 말을 잘 감정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백락이 한번 돌아보자 값이 3배나 뛰었습니다. (某聞木在山, 馬在肆, 遇之而不顧者, 雖日累千萬人, 未爲不材與下乘也; 及至匠石過之而不睨, 伯樂遇之而不顧, 然後知其非棟梁之材·超逸之足也.……昔人有鬻馬不售於市者, 知伯樂之善

5) 孫昌武, 《韓愈散文藝術論》(天津: 南開大學, 1986.7), pp.189-190.

相也，從而求之；伯樂一顧，價增三倍.)

「馬」를 ‘인재’, 「伯樂」을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에 비유하는 것은 중국의 典籍에서 광범하게 사용된 진부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馬」와 「伯樂」의 관계는 《莊子》·《韓非子》 등에 그 기록의 편린이 보이고, 《戰國策》에는 비교적 소상한 줄거리를 가진 故事가 실려 있는데 ‘千里馬’인 「驥」가 「伯樂」을 만나기 전까지의 고생과 「伯樂」을 만난 뒤의 희열이 대비되어 묘사되어 있다.⁶⁾ 그런데 이 글에서 한유는 「某聞」이라고 하여 자기가 전에 있었던 사실을 들은 것처럼 말문을 열고 있지만 「伯樂」이 말을 보고도 돌아보지 않았다는가, 「昔人」이하 「伯樂」이 한번 돌아본 뒤에 말값이 3배나 급등했다는 따위는 전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꾸며낸 사실이다. 상용되어온 형상적 비유를 활용하면서도 자기 나름의 허구적 가공을 통한 비유를 가미시킴으로써 인재의 발굴에 있어 안목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도리를 선명하게 전달한다고 하겠다.

Ⅲ. 運用 方式

散文은 행문에 있어 문자 그대로 散體 單行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피상적으로 보기에 매우 산만한 문학 형식으로 오인받기 십상이다. 기실 산문은 자유로운 행문을 그 특징으로 하면서도, 그 내적 구조에 있어서는 작품의 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각 부분이 상호 긴밀하게 조응하여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산문 작품이 이처럼 긴장된 내적 구조를 지니도록 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한유의 경우에 비유의 운용 방식도 그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6) 《戰國策·楚策》4·11.

앞절에서 비유의 취재 대상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작품 속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몫이 한두 어구의 수준에 그치는 것들을 주로 예시하였다. 다만 앞절의 말미에서 예시한 〈爲人求薦書〉는 설명의 편의상 거론하지 않았지만, 비유의 역할이 한두 어구의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작품 표현의 관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 즉, 인재 발굴에 있어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도리를 천명하기 위해 「馬」와 「伯樂」 이외에도 「木」과 「匠石」의 비유를 부가시키고 있으며, 「馬」와 「伯樂」은 뒤에 가서 그 비유의 의미를 한층 심화시켜 작품의 전후 맥락을 조응시키고 있다. 이는 孫昌武 교수가 비유 발전의 방식면에서 한유가 거둔 두드러진 성취의 두 가지로 지목한 橫的 배열과 縱的 심화의 논리⁷⁾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첫째, 橫的 배열은 중국 전통적인 용어로는 「博喩」⁸⁾ 내지 「雜喩」⁹⁾로 불렸는데,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거나 형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비유를 횡적으로 배열하여 연관지움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孫昌武 교수는 이런 비유의 방식이 佛典에서 상용되던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洪邁(1123-1202)의 말¹⁰⁾을 근거로 삼아 중국 고전 산문에서 이를 대량으로 활용한 작가는 韓愈가 호시고 蘇軾이 그 뒤를 계승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送石處士序〉·〈韋侍講盛山十二詩序〉·〈送高閑上人序〉가 연구자들이 주로 인용한 예라고 하였다. 여

7) 孫昌武, 《韓愈散文藝術論》, pp. 184-187.

8) 陳騭 著, 劉彥成 注譯, 《文則注譯》(北京: 書目文獻, 1988. 2), p. 44: 「博喩, 取以爲喩, 不一而足. 《書》曰: 『若金, 用汝作礪; 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 』」 여기서 《書》는 《書經·說命上》을 가리키며, 그 속에 쓰여진 博喩는 殷王 武丁이 3가지 비유로 大臣 傳說를 빗댄 것이다.

9) 黃震, 《黃氏日抄》(清乾隆三十三年刊本) 59·14a(再版; 臺北: 大化, 1984. 12), p. 674: 「雜喩形容, 亦曲盡文字之妙.」

10) 洪邁, 《容齋隨筆》(臺北: 大立, 1981. 7), p. 489, 《容齋三筆》 6, 〈韓蘇文章譬喩〉條: 「韓蘇兩公爲文章, 用譬喩處, 重複聯貫, 至有七八轉者.」 이 글에는 한유의 경우로 〈送石處士序〉와 〈韋侍講盛山十二詩序〉의 두 작품을 예시하고 있다.

기서 〈送石處士序〉(4-27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와 함께 도리를 말하고 고금의 행사의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을 분별하고, 사람 됨됨이의 높고 낮음과 일이 뒤에 장차 성공할 것인가 실패하게 될 것인가를 의론하게 되면, 마치 황하가 북 터져 아래로 흘러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駟馬가 가벼운 수레를 어거하고 익숙한 길을 나아가고 王良과 造父가 그 선후가 되는 것과 같으며, 마치 촛불로 비추고 숫자로 헤아리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것과 같다. (與之語道理, 辨古今事當否, 論人高下, 事後當成敗, 若河決下流而東注, 若駟馬駕輕車就熟路而王良造父爲之先後也, 若燭照數計而龜卜也.)

여기서는 이글의 주인공인 石洪의 인물됨이 출중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크게 3개의 비유를 연관지어 늘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인물됨이 출중함을 나타내주는 세목인 「語道理」·「辨古今事當否」·「論人高下」·「事後當成敗」의 4가지 일도 한 덩이로 연관되어 배열되어 있는데, 앞의 어느 비유가 어떤 일을 형용하는지의 대응 관계는 분명치 않다. 여하튼 3개의 비유는 모두 石洪이란 인물의 議論이 流暢하고 老熟하며 先見之明이 있음을 잘 형용하는 바, 이글은 이런 일련의 비유를 횡적으로 배열하여 구사함으로써 뛰어난 재능을 가진 石洪이 河陽軍節度使 烏重胤의 참모에 적합하다는 뜻을 매우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縱的 심화는 비유의 단계적 발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뾰족하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한유가 이런 비유에도 능한 솜씨를 발휘했다는 평가는 손창무 교수의 창견으로 보여지는데, 그는 이에 대해서도 〈後十九日復上書〉·〈送王(墳)秀才序〉·〈答竇秀才書〉의 3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 예로 생각되는 〈送王(墳)秀才序〉(4-262)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강물을 따라 내려감에 만약 멈추지 않는다면 비록 느리고 빠른 것은 있더라도 반드시 바다에 이르게 되지만, 만약 그 길을 얻지 못하면 비록 빨리 하고 멈추지 않더라도 끝내 도달하기를 바라지 못한다. 따라서 배우는 이는 반드시 자기가 갈 길을 신중히 하는데, 楊朱·墨翟·老聃·莊周·佛陀의 학문을 경

유하여 聖人の 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항해함에 지류를 끊고 저수지를 자르므로 바다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성인의 도를 보고자 구하면 반드시 孟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王墳이 경유하는 파가 길을 아는 데 접근하였으니, 만약 또 그 배와 노를 얻어 길을 따라 멈추지 않을 줄 알진댄 아아 전도는 헤아릴 수 없을지로다! (夫沿河而下, 苟不止, 雖有遲疾, 必至於海; 如不得其道也, 雖疾不止, 終莫幸而至焉. 故學者必慎其所道, 道於楊墨老莊佛之學, 而欲之聖人之道, 猶航斷港絕潢以望至於海也; 故求觀聖人之道, 必自孟子始. 今墳之所由, 既幾於知道, 如又得其船與楫, 知沿而不止, 嗚呼, 其可量也哉!)

이는 學者가 聖人(孔子)의 道를 배우고자 하려면 마땅히 올바른 경로를 통해야 한다는 도리를 배를 짓는 구체적인 일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王墳을 권면한 글의 마지막 단락이다. 그런데 여기서 배를 짓는 하나의 비유가 세 문장에서 각기 층차적 심화의 궤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 1 층차는 배를 저음에 있어 「沿河」를 하던 바다에 이를 것이지만, 「不得其道」하면 바다에 이를 수 없다는 正反 양면의 비유를 써서 「學者必慎其所道」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제 2 층차는 反面의 경우를 발전시켜 학자가 異端의 길로 빠져 성인의 도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도리를 배를 저음에 있어 「斷港絕潢」하고서 바다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함으로써 「求觀聖人之道, 必自孟子始」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제 3 층차는 王墳에게로 돌아와 正面의 경우를 발전시켜 학습의 경로를 알고 있음을 칭찬하고 또 배를 짓는 것으로 비유하여 「得其船與楫, 知沿而不止」할 것 같으면 그 前途가 한량이 없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는 배를 짓는 형상적 비유가 정반 양면을 향해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들어감으로써 孔子(551-479 B.C.)의 도를 배우려는 학자는 학습의 경로를 신중하게 택해야 하는 바 그 길은 孟子(372-289 B.C.)에서 시작된다는 도리를 설명하고, 王墳이 이를 명실하여 면려한다면 전도가 양양할 것임을 매우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종적 심화의 가장 극명한 예는 바로 全文이 비유로 조직되

어 있는 경우라 생각된다. 한유의 산문에는 전문이 비유로 된 작품이 더러 눈에 띄는 바, 〈感二鳥賦〉(1-1) · 〈雜說〉 4篇(1-32) · 〈獲麟解〉(1-41) · 〈圻者王承福傳〉(1-53) · 〈應科目時與人書〉(3-205) · 〈毛穎傳〉(8-566) · 〈送窮文〉(8-570) · 〈鱷魚文〉(8-573)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작들이다. 이들 작품은 전문이 비유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종적인 심화 이외에도 횡적인 배열이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雜說〉其三의 「옛날의 성인(聖人)은 그 머리가 소와 같은 것이 있고, 그 형체가 뱀과 같은 것이 있고, 그 입이 새와 같은 것이 있고, 그 얼굴이 악귀를 쫓는 神인 蒙俱와 같은 것이 있다」(昔之聖者, 其首有若牛者, 其形有若蛇者, 其喙有若鳥者, 其貌有若蒙俱者)란 표현은 비유의 횡적 배열이 가미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든 예에서 〈雜說〉其一(〈龍說〉) · 其四(〈馬說〉)와 〈獲麟解〉 · 〈圻者王承福傳〉 · 〈應科目時與人書〉 · 〈毛穎傳〉 · 〈送窮文〉 · 〈鱷魚文〉 등은 형상적 비유의 덩어리이면서 故事의 줄거리까지 가미되어 寓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언의 정의는 동서 고금에 따라 다양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중국 고대 우언의 두 가지 기본 요소인 比喩의 寄托, 곧 寓意와 故事의 줄거리를 겸유하고 있는 바¹¹⁾ 우언의 범주에 열입시킬 수 있다. 우언은 문장 체재의 하나로까지 발전하였지만 그 길이가 짧고 구성이 간단한 관계로 중국 문학사에서 산문의 제 1기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는 先秦代(주로 戰國)에 諸子들의 문장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어 산문과 일찍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우언은 사람이나 생활 주변의 비근한 사물(동식물과 무생물 포함)을 제재로 하여 간단하고 형상적인 묘사를 통해 그속에 생활의 진리, 훈계, 풍자, 골계 등을 은연중에 기탁함으로써 독자에게 계시와 교훈을 던져줄 수 있다. 우언의 주제는 작고 비근한 것을 빌어 크고 심원한 의미를 기탁하는데, 어떤 경우

11) 陳蒲清, 《中國古代寓言史》(長沙: 湖南教育, 1983. 11), p. 2.

는 그 우의가 고사의 즐거리 속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작품의 결미에 밝혀져 있기도 한다.¹²⁾ 한유의 우언 작품은 제제면에서 ‘용’ (龍) · ‘말’ (馬) · ‘기린’ (麟) · ‘미장이’ (圻者: 王承福) · ‘괴물’ (怪物: 蛟龍) · ‘뿔’ (毛穎) · ‘궁귀’ (窮鬼) · ‘악어’ (鱷魚) 등 사람과 사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龍」·「麟」과 같은 신화상의 동물과 「窮鬼」 및 의인화한 「毛穎」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怪怪奇奇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제의 기탁 방식면에서 다른 작품들은 寓意가 숨어 있는 반면에, 〈應科目時與人書〉와 〈毛穎傳〉은 文尾에 비유의 기탁이 간략하게 문면으로 드러나 있다. 이제 형상적 비유의 심화 과정을 통한 우의를 특히 短篇인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龍」과 「雲」의 관계를 이야기한 〈龍說〉(1-32)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龍이 氣를 내뿜어 구름을 이루니 구름은 본래 용보다 신령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용이 이 기운을 타고 아득히 우주의 끝까지 도달하고, 해와 달에 다가가 그 빛을 가리고,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온대지 위에 비를 내려 구름과 계곡을 잠기게 하니 구름 또한 신령스럽고 피이한 것이로다! 구름은 용이 신령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용의 신령스러움으로 말하면 구름이 신령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이 구름을 만지지 못하면 그 신령스러움을 펼칠 수 없나니, 그것이 의지할 데를 잃어버리던 확실히 안되는도다! 기이하도다!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易經》에 이르기를 「구름은 용을 따른다」고 했다. 이미 용이라고 한 이상 구름은 그것을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龍嘘氣成雲, 雲固弗靈於龍也; 然龍乘是氣, 茫洋窮乎玄間, 薄日月, 伏光景, 感震電, 神變化, 水下土, 汨陵谷: 雲亦靈怪矣哉! 雲, 龍之所能使爲靈也, 若龍之靈, 則非雲之所能使爲靈也. 然龍弗得雲, 無以神其靈矣: 失其所憑依, 信不可歟! 異哉! 其所憑依, 乃其所自爲也. 《易》曰: 「雲從龍.」 旣曰龍, 雲從之矣.)

이 글은 龍과 雲의 고사를 통해 양자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의론하고 있는데, 전문이 6층차로 되어 그 심화 곡절의 과정을 보여 준다. 즉, ① 龍이 내뿜는 氣로 雲을 형성하므로 雲은 龍에 비해 「弗

12) 王世德 主編, 《美學辭典》(北京: 知識, 1986. 9), p. 480 「寓言」條.

靈], ② 龍이 雲을 타고 온갖 조화를 다 부리므로 雲도 「靈」, ③ 雲이 「靈」한 원동력은 龍에서 나온 것이나 龍의 「靈」은 雲이 부여한 것은 아님, ④ 龍도 雲에 의지하지 않으면 날아다닐 수 없어 「靈」을 다할 수 없음, ⑤ 龍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만든 것이므로 괴이함, ⑥ 《易經·乾卦·文言傳》을 典據로 龍에게는 雲이 따라다니기 마련임을 층차적으로 의론하고 있다. 이 글은 龍과 雲의 관계 문제에 대한 고사를 빌어 그 이면에 비유의 우의를 깃들이고 있다. 다만 작자가 문면에 전달하고자 하는 본뜻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제를 명확히 꼬집어 말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李光地는 이 글에 기탁된 우의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아 道義와 氣의 철학 범주 및 德行과 文章의 文論 영역 뿐 아니라, 君臣의 遇合, 朋友의 應求, 聖人の 後世 教化 등 사회 현상에 두루 관계시키고 있다.¹³⁾ 기실 이 글의 우의에 대해서는 역대 온갖 견해가 제기되어 왔는데, 龍과 雲은 각기 ‘聖君’과 ‘賢臣’을 상징하는 바 君臣의 相須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의 초점이 賢臣은 聖君의 등용에 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龍의 역할에 있으므로, 한유가 자신이 가진 才德도 聖君을 만나지 못하면 공적을 이룰 수 없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유의 우언 중에서 〈應科目時與人書〉(3-205)는 얇은 여울에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 怪物(蛟龍)의 고사를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여 우의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天池(大海, 南海)의 물가와 大江(長江)의 언덕에 괴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보통 비늘(어류)과 평범한 딱지(갑각류)를 가진 품종은 필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을 만나면 비바람을 변화롭게 하여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그것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대체로 열 자 안팎의 사이일 따름입니다. 높은 산과 큰 언덕, 먼 길과 험난한 요새도 그것을 막는 장애가

13) 李光地曰：「此篇取類深，寄托至廣。精而言之，如道義之生氣，德行之發爲事業文章；大而言之，如君臣之遇合，朋友之應求，聖人之風之興起百世：皆是也。」(《校注》의 補注, 1-33)

되지 못하지만, 그것이 물이 마른 곳에서 곤궁을 당할 때는 스스로 물에 이르
지 못하고 수달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마 심중 팔구입니다. 만약 유
력자가 그것의 곤궁함을 가련하게 여겨 그것을 (물속으로) 운송하여 옮긴다면
아마도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발을 펴는 노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괴물은 못
등물과 다른 데 자부심을 들고,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또 말하기를
「모래와 진흙 속에서 문드러져 죽더라도 나는 차라리 즐거워할 것이나, 개가
고개를 숙이고 귀를 늘어뜨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동정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
은 나의 뜻이 아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력자가 그를 만나 유심히 보고도
못 본 것같이 합니다. 그가 죽을지 살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어떤 유력자가 그의 면전에 서 있어 잠시 시험삼아 고개를 들고 한
차례 울부짖으며 호소하는데, 유력자가 그것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발을 펴는 노고를 잊고 그것을 맑은 물결에로 옮겨놓지 않으리
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운명이고, 그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운명이며, 그의 처지가 운명의 소관이라는 것
을 알고도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것도 운명입니다. 저는 지금 실로 이것과 유사
한 상황에 있어, 이 때문에 스스로의 거칠고 어리석은 죄과를 잊어버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閻下(韋舍人)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살펴 주시옵
소서! (月日愈再拜：天池之濱，大江之濱，曰有怪物焉；蓋非常鱗凡介之品彙匹
儔也！其得水，變化風雨，上下于天，不難也；其不及水，蓋尋常尺寸之間耳。無
高山大陵曠途絕險爲之關隔也；然其窮涸，不能自致乎水，爲獷獯之笑者，蓋十八
九矣。如有力者，哀其窮而運轉之，蓋一舉手一投足之勞也。然是物也，負其異於
衆也，且曰：「爛死於沙泥，吾寧樂之；若俛首帖耳搖尾而乞憐者，非我之志也。」
是以有力者遇之，熟視之若無覩也。其死其生，固不可知也。今又有有力者當其前
矣。聊試仰首一鳴號焉，庸詎知有力者不哀其窮，而忘一舉手一投足之勞而轉之清
波乎？其哀之，命也；其不哀之，命也；知其命而且鳴號之者，亦命也：愈今者
實有類於是，是以忘其疏愚之罪，而有是說焉。閻下其亦憐察之！)

이 서신은 怪物로 이름된 龍의 고사를 쓰고 마지막에 이 괴물의 처지
가 자신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덧붙여 우의의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 괴물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하면 힘을 발휘
할 수 없으며 물로부터 멀다되지 않는 곳에 있지만 자력으로 그곳에 이
를 수 없고 有力者가 옮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력자가 이것을 물까
지 옮기는 것은 「一舉手一投足之勞」에 불과하지만 이 괴물은 자만심이

대단하여 동정을 쉽사리 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금 괴물 앞에 유력자가 한 사람 서 있는데, 괴물은 그가 내심으로 자신을 동정히 주기를 바라면서도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처분을 기다린다. 이런 괴물의 모습은 바로 한유 자신의 투영으로 ‘관리 임용 고사’ (科目)인 博學宏辭科에 응시하면서 유력자인 韋舍人에게 자신을 천거해 주기를 요청하는 뜻을 은연 중에 담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俛首帖耳搖尾而乞憐」하는 저자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천거를 바라는 말하기 어려운 뜻을 괴물의 우언을 통해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작품은 인재 선발에 있어서 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도리를 천발하면서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재덕을 가진 인재인 자신을 황제나 유력자가 발탁해 주기를 바라는 심중을 피력한 것이다. 인재 문제가 당시 사회의 중요한 정치 문제라는 점에서 이 두 작품도 사회적 목적 의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순히 선발자의 역할을 강조했을 뿐 그들의 무능이나 불합리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 내지 풍자의 의의가 부각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馬說〉이나 〈獲麟解〉에는 자신의 懷才不遇와 함께 선발자의 무능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숨어 있다. 〈馬說〉은 「千里馬」와 「伯樂」의 우언 고사를 통해 천리마로 비유된 작자가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는 선발자를 만나지 못해 받는 수모와 비분을 논하면서 말을 보는 사람이 안목이 없으면서 도리어 「천하에 훌륭한 말이 없다」(天下無馬)고 한탄하는 盲目을 풍자함으로써 인제 선발자의 무능을 비판한 잘 알려진 작품이므로, 여기서는 〈獲麟解〉(1-41)를 예로 들기로 한다.

기린의 신령함은 밝게 드러나 있다. 《詩經》에서 읊조려지고 《春秋》에 적혀 있으며, 經書의 해설과 주석이나 百家의 책에 잡다하게 섞여 나와서 비록 부너 자각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다 그것이 상서로운 지를 안다. 그러나 기린의 물건됨이 일반 가정집에서 길러지지 않고 천하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그 행

체는 등류가 없어 소·말·개·돼지·승냥이·이리·순록·사슴과 같지를 알으니, 그렇다면 비록 기린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린인지를 알지 못한다. 뿔이 달린 것은 우리가 그것이 소라는 것을 알고, 갈기가 달린 놈은 우리가 그것이 말이라는 것을 알고, 개·돼지·승냥이·이리·순록·사슴은 우리가 그것이 개·돼지·승냥이·이리·순록·사슴임을 알겠는데, 오직 기린만은 알지 못하니 알지를 못하던 그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비록 그러하나 기린이 나눔에 반드시 聖인이 天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기린은 성인을 의해서 나오는데, 성인은 반드시 기린을 알아보니 기린은 결과적으로 상서롭지 못한 것이 되지 않는다. 또 말하기를 「기린의 기린이 되는 까닭은 德으로 하는 것이 지 형체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만약 기린의 출현이 성인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麟之爲靈昭昭也. 詠於《詩》, 書於《春秋》, 雜出於傳記百家之書; 雖婦人小子皆知其爲祥也. / 然麟之爲物, 不留於家, 不恒有於天下. 其爲形也不類, 非若馬牛犬豕豺狼麋鹿然; 然則, 雖有麟, 不可知其爲麟也. 角者吾知其爲牛, 鬣者吾知其爲馬, 犬豕豺狼麋鹿, 吾知其爲犬豕豺狼麋鹿, 惟麟也不可知; 不可知, 則其謂之不祥也亦宜. / 雖然, 麟之出, 必有聖人在乎位. 麟爲聖人出也; 聖人者, 必知麟, 麟之果不爲不祥也. / 又曰: 「麟之所以爲麟者, 以德不以形.」 若麟之出不待聖人, 則謂之不祥也亦宜.)

이 글은 ‘기린’(麟)의 고사를 빌어 그것이 「祥」인지 「不祥」인지를 의론하였는데, “/”표를 한 4개의 단락 간에 의미의 전환과 심화의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2단락은 「知」로 기린의 「祥」·「不祥」을 의론하여 본래 영물이지만 그 형체에 비슷한 것이 없어 그것이 기린인지 알 수 없으므로 「不祥」하며, 3·4단락은 「德」으로 기린의 「祥」·「不祥」을 의론하여 그것을 알아보는 성인이 재위에 있을 때 출현하면 「祥」하지만 성인을 기다리지 않고 출현하였기 때문에 결국 「不祥」하다고 귀결 짓고 있다. 즉, 「祥」과 「不祥」을 둘러싼 반복적 의론을 통해 성인을 기다리지 않고 출현한 점을 들어 「不祥」으로 결론 지은 셈이다. 이 기린의 이야기는 인재의 문제를 비유하고 또 한유 자신의 懷才不遇함을 비유한다. 한유가 글의 말미에 기린이 성인을 기다리지 않고 출현한 것을 「不祥」하다고 한 것은 錢基博의 해석처럼 자신에 대한 원망인 것 같지만 실은 세상에 대한 울분의 표현이다.¹⁴⁾ 따라서 이는 때를 만나지 못해 懷才不

遇한 자신의 感慨와 함께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발탁하는 안목이 없는 통치자를 은연 중에 풍자하는 우의를 담고 있다.

이밖에 〈圻者王承福傳〉(1-53) · 〈毛穎傳〉(8-566) · 〈送窮文〉(8-570)은 모두 사회 비판과 풍자의 우의가 강렬하게 내재된 작품들이다. 〈圻者王承福傳〉은 傳記體 寓言으로 자신의 육체 노동의 댓가로 삶을 즐기는 ‘미장이’ 王承福의 생애를 빌어 두능하면서 관작만 탐하는 벼슬아치들의 추악상을 폭로 풍자한 작품이다. 그리고 토끼의 털로 만든 붓에 가탁한 假傳인 〈毛穎傳〉은 秦나라의 장군인 蒙恬이 붓을 만들었다는 傳說을 이용하여, 毛穎의 탄생에서부터 평생 동안 秦始皇을 위해 해준 무수한 공적과 늙어서 버려지는 것까지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문미에 「秦나라가 제후를 멸망시킬 때 모영이 참여해서 공이 있었거늘, 상이 공로에 보답되지 않고 늙음으로 소원함을 당했으니 진나라는 진실로 은혜로움이 적도다」(秦之滅諸侯, 穎與有功, 賞不酬勞, 以老見疎, 秦眞少恩哉!)란 표현이 있어 우의의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老境에 버려진 모영의 일대기를 빌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重用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感慨 속에 당시의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當權者들의 각박하고 허위에 찬 본질을 풍자하고 있다. 〈送窮文〉은 한유가 자신을 곤궁하게 만드는 장본인 궁귀를 떠나 보내려다가 결국 도리어 상좌로 맞이한다는 고사를 빌어, 재능을 품은 君子가 곤궁하고 時俗에 영합하는 小人이 득세하는 전도된 당시 사회를 풍자한 작품이다. 요컨대 이들 세 작품은 모두 자신의 회재불우한 감개 속에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의 뜻을 깃들인 우언이다.

〈鱷魚文〉은 깊은 계곡에 살면서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鱷魚의 행패와 그것에 대한 潮州 刺史 한유 본인의 一戰不辭의 결의가 주축이 된 이야기를 통해, 악어로 형상화된 토착 악당들을 소탕하겠다는 우의를

14) 錢基博, 《韓愈志》(增訂本; 臺北: 華正, 1985.6), p.123: 「〈獲麟解〉, 蓋以自況也……意若自慰, 其實憤世。」

것들이고 있다. 이 글은 지방장관의 대임을 맡은 그가 당해 지방 土賊들의 발호를 견제하여 애민의 정치를 펴겠다는 政見을 이런 우언을 통해 효과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유의 우언은 의론과 서사 산문에 들어 있는데, 이로써 추상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됨으로써 가시적으로 형상화되어 의론이나 서사의 문학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그의 우언의 다수 작품이 현실 풍자의 우의를 지니고 있어 풍자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唐宋 寓言 散文의 前途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結 論

산문은 체재상의 제한이 거의 없는데다 그 취재의 범위가 넓고 표현 방식도 다양한 관계로 여타 장르에 비해 형상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문도 문학의 한 장르인 만큼 형상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그 문학성을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유 산문의 예술상의 성취를 고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비유의 수사 기교에 나타난 형상성의 문제를, 비유의 취재 대상과 운용 방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비유의 대상에 있어 한유의 산문은 대부분 현실 생활 주변의 사물 내지 현상이 주를 이루고, 典故를 통한 역사상의 구체적 사실이 종의 지위에 있다. 이는 그의 산문 창작의 취재원이 현실 생활에 밀착되어 있음을 현시해주며, 개중에는 인민의 구두 언어에 기초한 것도 있어 中唐代 이후 古文運動이 지향한 바의 산문 언어의 창조라는 측면에서도 그 발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典故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했으나, 실제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한유 본인이 꾸며낸 사실인 경우도 있다. 이점은 그가 전

대의 전적에서 비유의 대상을 끌어오면서도 작가 나름의 글재주를 발휘하여 허구성을 가미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둘째, 비유의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 한유의 산문에는 비유가 한두 語句의 차원에서 쓰여진 것은 부지기수이고, 나아가 橫的 排列과 縱的 深化 및 寓言으로까지의 확대 사용의 양상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점은 중국 문학에서 비유 방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로 여겨지는 바, 이러한 비유의 운용은 작품의 전후 맥락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 작용하여 산문이 느슨하거나 산만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가 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언의 경우는 이야기 줄거리의 完整度나 현실 반영의 폭에 있어 동시대의 그와 쌍벽을 이루는 柳宗元(773-819)의 그것에 비해 손색이 있다.

셋째, 이와 같은 비유의 취재 대상과 운용 방식은 한유 산문의 형상성을 제고시켜 실용성이 강한 의론과 서사 산문도 문학의 전당으로 들어올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즉, 한유의 산문은 道理를 설명하고 事態나 事實 및 感情을 형용함에 있어 구체적 사물에 의탁한 비유의 표현 방식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특히 의론 산문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추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形象性을 지니도록 해주며, 서사 산문이 사실 기술의 무미 건조함을 극복하게 해준다. 문학은 무미 건조한 개념어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개나 사실의 평면적인 나열과 기술보다는, 생활 주변이나 역사상의 구체적 사물을 빌어 비유적인 의미 전달에 힘입음으로써 구체적 생동감을 갖춘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 馬其昶 校注, 《韓昌黎文集校注》(上海: 上海古籍), 1986. 12.
吳文治 編, 《韓愈資料彙編》(北京: 中華), 1983. 8.

- 錢仲聯 集釋，《韓昌黎詩繫年集釋》(上海：上海古籍)，1984. 3.
- 童第德，《韓愈文選》(北京：人民文學)，1980. 6.
- 孫昌武，《韓愈散文藝術論》(天津：南開大學)，1986. 7.
- 王世德 主編，《美學辭典》(北京：知識)，1986. 9.
- 蔣孔陽，《形象與典型》(天津：百花文藝)，1980. 10.
- 錢基博，《韓愈志》(增訂本；臺北：華正)，1985. 6.
- 諸祖耿，《戰國策集注彙考》(揚州：江蘇古籍)，1985. 7.
- 陳騫 著，劉彥成 注譯，《文則注譯》(北京，書目文獻)，1988. 2.
- 陳蒲清，《中國古代寓言史》(長沙：湖南教育)，1983. 11.
- 何法周，《韓愈新論》(開封：河南大學)，1988. 8.
- 洪邁，《容齋隨筆》(臺北：大立)，1981. 7.
- 黃震，《黃氏日抄》(清乾隆三十三年刊本：再版；臺北：大化)，1984. 12.